

태권도 격파경기의 개선방안 탐색

Exploring the Improvement of Taekwondo breaking event

방인주(백석대학교 초빙교수) · 장권*(한국체육대학교 교수)

inju Bang *Baek Seok UNIV* · kwon Jang* *Korea National Sport UNIV*

요약

이 연구는 태권도 격파경기가 스포츠 본질에 맞는 경기로 발전할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격파 경기에 참여 경험이 있는 선수와 지도자, 그리고 대한태권도협회 상임 심판 등 격파경기와 직접 관련이 있는 전문가 6명을 연구 참여자로 선정하였다. 선정된 연구 참여자들을 대상으로 질적 연구 방법인 반 구조화된 심층 면담을 통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을 도출하였다. 첫째, 현재 태권도 격파경기의 문제점은 1) 채점규정에서 회전 격파와 도약 격파는 낮은 난도로 인하여 재미없고 지루한 경기를 선보이고 있으며 동점자 속출. 2) 선수의 신체적 특징을 고려하지 않은 불이익과 심판에 대한 자질 부족. 3) 선수들의 안전을 고려하지 않은 경기 운영으로 나타났다. 둘째, 태권도 격파경기의 개선방안으로 1) 회전 발차기와 도약 발차기의 결선 경기는 선수들 자신이 구사할 수 있는 난도 높은 기술을 선보이도록 규정 개정. 2) 상임심판 선발 강화. 3) 안전을 위한 장비 개발과 대학생들의 참여를 독려하기 위한 단체전과, 일반부 도입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개선방안들의 실천을 통해 태권도 기술의 본질에 맞는 인간의 한계를 넘는 기술을 보여주는 새로운 태권도 경기의 모습과 함께 전체 태권도의 경기화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suggest ways to improve Taekwondo breaking games so that they can develop into games that fit the essence of sports. To achieve this purpose, six experts directly related to the breaking game, including athletes and leaders who have participated in the breaking game, and standing judges of the Korea Taekwondo Association, were selected as research participants. The following conclusions were drawn through semi-structured in-depth interviews with selected research participants, which are qualitative research methods. First, the problem with the current Taekwondo breaking game is 1) In the scoring regulation, the rotation breaking and the leap breaking are not fun and boring due to the low difficulty, and the number of tied players continues. 2) Disadvantages that do not take into account the physical characteristics of the athlete and lack of qualifications for the referee. 3) It turned out that the game was run without considering the safety of the players. Second, as a way to improve Taekwondo break-up games, 1) The final round of rotation kicks and leap kicks is revised to show high-level skills that players can use. 2) Strengthening the selection of standing judges. 3) It was found that it is urgent to develop equipment for the safety of teenagers and to introduce group competitions to encourage college students to participate. If improvement measures are implemented through this, skills and craftsmanship that exceed human limits beyond cheers will be created, and signs of admiration and respect may appear. It will also be a great help for the overall Taekwondo competition.

Key words : Taekwondo, Breaking, Breaking event, Event rule, Improvement plan

1. 서론

태권도 시범은 수련자가 갖고있는 기술을 선보임을 통하여 태권도 기술의 참된 묘미와 위력을 보여줌으로써 흥미와 감동, 나아가 태권도 정신과 가치를 알리는 것에 목적이 있으며(국기원, 2021), 태권도 시범 활동을 통하여 태권도 수련의 참여동기를 높이는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태권도 시범에서는 다양한 기술뿐만 아니라 수련자의 정신적 기품까지를 현장에서 직접 보여주게 됨으로써 홍보 측면에서는 멋진 말이나 글보다 더욱 큰 효과를 가져올 수 있으며 이와 같은 의미에서 시범은 태권도를 알리는 최고의 홍보 수단이며, 나아가 전 세계에 우리의 신체문화 전파를 통한 국위선양을 도모하고 있다.

태권도 시범은 태권도 겨루기 경기의 올림픽 정식종목 채택과 유지, 저변확대에 많은 기여하였음은 물론, 나아가 태권도 시범의 발전과 변화를 통하여 문화콘텐츠와 공연예술 분야로 성장하고(김주연, 김은정, 정웅근, 2007; 태권도진흥재단, 2017; 권경상, 권현수, 권구명, 2018) 있으며, 특히 2019년 3월 미국에서 진행된 ‘더 월드 베스트’ 경연에 참가한 국기원 태권도시범단이 최종 준우승을 차지하면서 태권도의 우수성을 전 세계에 알리며(무예신문, 2019) 태권도 시범의 문화콘텐츠와 공연예술로서의 가능성을 증명하는 계기가 되었다.

현재 태권도 시범은 태권도 겨루기경기과, 품새경기과에 이어 격파경기의 영역으로 확장하여 발전하고 있다. 2014년 한국체육대학교는 국내 최초로 한국체육대학교 총장배 전국태권도대회에 태권도 시범(격파)종목을 채택하여 경기를 진행하였으며 특히 입상자에 한하여 대학입학 수시전형에 지원할 수 있도록 입시 규정을 개정하였다. 이어서 2015년부터 용인대학교와 경희대학교에서도 태권도대회에 시범종목을 도입하면서 활성화되기 시작했다(장권, 김종수, 2019).

시범종목을 채택한 이후 한국체육대학교 총장배의 격파경기 접수현황을 살펴보면 1회 대회인 2014년도에 237명이 출전하여 경기가 진행되었고, 2015년에는 361명, 2016년에는 439명, 2017년은 515명, 2018년은 766명, 2019년에는 852명, 2021년 1398명, 2022년 2129명(한국체육대학교, 2022)으로 대회가 거듭될수록 대회에 참가하는 선수들이 비약적으로 증가하였음을 알 수 있으며 이는 태권도 격파대회가 점차 활성화되고 발전된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장권, 김종수, 2019).

대한태권도협회에서는 2021년 12월 격파 심판자격 연수를 통하여 전문 심판의 선발과 함께 심판에 대한 보수 교육을 실시하고, 기술전문위원회에 격파심판위원회를 설치하여 격파대회에 대한 기구와 제도를 정비하였다(대한태권도협회, 2021). 이어서 2022년부터 각 대학과 단체별로 이뤄지던 시범경기를 “격파대회”라는 용어로 통일하며 대한태권도협회 자체 격파대회의 개최와 함께 각종 격파대회에 참가하는 선수에 대한 선수등록과 입상실적을 관리하게 되면서 공식 대회로 인정되어 대회가 치러지고 있다.

이로써 2014년 한국체육대학교 총장배 시범대회를 기점으로 태권도학과가 개설된 각 대학을 중심으로 개별적으로 개최되어 왔던

격파대회는 통일된 규칙과 명칭 그리고 심판 규정의 적용 등으로 새롭게 발전된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 하지만 이 같은 협회와 현장 전문가들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격파대회의 경기방식과 심판관정의 규정 등에서 선수와 지도자, 심판들 사이에 서로 다른 의견과 관점이 나타나고 있으며 특히 경기방식의 개선에 대한 목소리가 높게 나타나고 있다.

현재 시행 중인 격파 경기는 체공 도약 격파(돌려차기 3단과 4단, 가위차기 3단과 4단, 옆차기 3단과 4단), 수직축회전 격파(뛰어 540도 1단과 2단, 540도 뒤후려차기 3단, 720도 돌려차기 1단과 2단), 수평축 회전 격파(제자리 뒤공중 앞차기 1단과 2단, 뛰어 뒤공중 앞차기 1단과 2단, 측전 뒤공중 앞차기 2단과 3단), 종합격파(체공격파, 수직축 격파, 수평축 격파, 던고 격파)로 나누고 있다(대한태권도협회, 2022).

종합격파에서는 선수들이 서로 다른 기술을 발휘하게 됨에 따라 난도 점수와 완성도, 표현성 점수를 각각 부여 받는 반면 체공 도약 격파와 수직축, 수평축 회전 격파에서는 경기 규정상 선수들이 같은 기술을 발휘하여 경쟁하는 경기방식으로 진행되기에 기술의 난도 구분에 대한 기준이 세밀하지 않고 차별화되어 있지 않은 것이 문제점으로 나타나고 있다.

태권도 발차기 기술의 ‘꽃’이라 불리는 회전 발차기와 체공 도약 격파는 태권도 시범기술 발전에 큰 영향을 미쳤다고 할 수 있다. 현재 시범 현장에서 발휘되는 회전 발차기 기술 중 수직 회전 발차기는 900도, 1080도, 1260도 회전하면서 송판을 4장에서 5장까지 격파하고 있고, 수평 회전 발차기 또한 도약을 통한 공중제비 동작 발차기 기술로 송판 5장에서 6장까지 격파하고 있으며, 체공 도약 격파는 한번 도약하여 공중에서 발차기로만 송판을 7장까지 격파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하지만 대한태권도협회가 규정한 2022 태권도 격파 경기규칙에서 회전 발차기는 540도, 720도, 제자리 뒤공중, 뛰어 뒤공중 발차기로 최고 3단 차기로 규정하고 있고, 도약 발차기는 체공 3단과 4단 발차기로 제한하고 있다. 이와 같은 상황은 경기 현장에서 난도가 높은 다양한 기술보다는 난도가 낮지만 단순한 기술 발휘로 이어지고 있으며, 이로 인한 동점자의 속출 등의 문제가 나타나고 있어 기술의 수월성(秀越性)을 가리고자 하는 격파경기 본래의 목적과 동떨어진 규정의 적용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경기란 사전적으로 일정한 규칙 아래 기량과 기술을 겨루는 행위(국어사전, 2020)를 뜻하고 있다. 아울러 올림픽경기에서 지향하는 표어가 라틴어인 “보다 빠르게, 보다 높게, 보다 강하게(Citius, Altius, Fortius)”로 지정되어 있음(두산백과, 2020)을 직시할 때 태권도 격파경기는 ‘더 많이, 더 강하고, 더 정확하게 타격하는가’로 생각할 수 있으며 결국 율동한 태권도 타격기술로 승부를 겨루는 행위라고 할 수 있다.

현재까지 태권도 격파경기와 관련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태권도 시범경연대회의 현황 및 발전방안(김영진, 전정우, 2018), 태권도 시범의 공연예술과 경기화 발전방향 탐색(강은석, 문영재, 허승은, 2019), 대학 총장기(배) 태권도 시범대회의 문제 탐색 및 발전

에 관한 연구(이용주, 허재성, 김기남, 2019), 태권도 시범단원의 자기관리 및 스트레스 대처가 경기력에 미치는 영향(김상명, 남미희, 이용주, 2018), 고등학교 태권도 시범종목 선수들의 격파대회 고득점 획득 요인 탐색(전인률, 2020) 등으로 나타나고 있다.

위의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공연과 경기화 발전 방향, 시범기술의 용어, 시범기술의 중요 평가항목, 심판의 교육, 시범대회의 안전 문제, 심판의 전문성 등 시범대회의 개선방안과 심판의 전문성 등에 대한 연구를 중심으로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으며 태권도 격파의 경기방식에 대한 연구는 부족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태권도 격파경기는 태권도 시범에서 파생하여 비록 겨루기와 품새보다는 뒤늦게 경기화가 이뤄졌으나 태권도의 기술의 우수성과 발차기의 화려함을 유감없이 보여주며 관중들의 흥미와 인기를 차지할 수 있는 이른바 미디어형 경기종목이다. 이와 같은 격파대회의 강점은 국제대회의 정식종목으로 채택 가능성이 높은 신규 태권도 경기종목으로 주목받고 있으며 이와 같은 상황에서 격파경기대회의 발전을 위한 구체적인 연구와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태권도 격파경기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탐색하여 스포츠 경기종목으로서 기량과 기술을 공정하게 겨루어 승부를 가리는 것뿐만 아니라 격파경기를 통해 태권도 기술의 발전을 이루고자 하는 것에 대한 올바른 방향을 제시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II. 연구방법

1. 연구참여자

이 연구에서 태권도 격파경기의 개선방안을 탐색하기 위해 유목적 표집을 통하여 연구참여자를 선정하였다. 연구참여자는 연구목적에 부합되는 격파경기에서 참여 경험이 있는 선수, 지도자, 그리고 대한태권도협회 상임심판 등 격파경기와 직접 관련이 있는 전문가 6명을 연구참여자자로 선정하였다. 선정된 연구참여자들은 현재 우수한 경기력과 지도력, 심판 경력을 겸비하고 있으며 이들의 경험이 태권도 기술격과 경기의 문화를 주도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구체적인 연구참여자들의 일반적 특성은 <표 1>과 같다.

표 1. 연구참여자의 일반적 특성

직위	성별	성명	소속	특성
지도자	남자	AAA	GGG소속	국가대표시범단배출 격파경기 우승자 배출
	남자	BBB	HHH소속	국가대표시범단배출 격파경기 우승자 배출
선수	남자	CCC	III대학	국가대표시범단원, 체공도약격파 우승
	남자	DDD	JJJ대학	국가대표시범단원, 회전격파 우승
심판	남자	EEE	KKK대학	국가대표시범단 출신 격파 상임심판
	남자	FFF	LLL대학	국가대표시범단 출신 격파 상임심판

2. 조사 도구

이 연구의 조사 도구로 대한태권도협회에서 주최하는 격파경기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파악하고, 나아가 격파경기의 발전에 관한 의견을 심층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심층면담을 실시하였다.

격파대회의 문제점과 해결방안을 위해 태권도 시범(격파) 전공 태권도학과 교수, 태권도 시범(격파) 분야 박사학위 소지자, 태권도 시범(격파) 분야 지도자들로 태권도 격파대회 전문가 집단을 구성하여 질문 가이드라인을 설정하였고, 반 구조화된 질문을 중심으로 심층 면담을 실시하였다.

질문지는 사전에 모든 연구참여자들에게 이메일로 송부하였다. 이는 연구참여자들에게 어떠한 질문이 주어질 것인지 인지하게 하여 충분한 시간을 갖고 답변에 대한 준비를 하게 함으로써 연구참여자로서 하여금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연구 참여를 이끌어내기 위함이다. 아울러 연구참여자자 선호하는 장소에서 면담이 이루어졌으며, 연구 목적에 대하여 충분한 설명이 이뤄진 다음 사전에 준비한 면담 순서에 따라 진행하였다.

면담은 질문하는 방식에 융통성을 가질 수 있는 반 구조화된 면담 방식으로 진행하였다. 이 과정에서 신뢰도 및 타당도를 높이기 위해 동료 연구자와 함께 지속적인 협의를 통하여 다각적인 검증을 실시하였으며, 연구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검토하였다.

표 2. 심층 면담의 범위 및 내용

구분	심층면담의 범위
격파대회의 문제점	기술의 난도 규정과 제한
	채점 규정과 방식
	공정성의 담보
	경기 운영방식
개선 및 발전방안	격파대회의 발전방안

3. 자료 분석

이 연구에서 사용한 반 구조화 된 심층 면담법을 활용한 연구 방식은 원자료(raw data)에 대한 해석과 이해 방법에 따라서 그 의미가 달라질 수 있다. 이 연구에서의 자료 분석 방법은 질적 연구 방법에서 널리 사용되는 귀납적 범주분석(Patton, 1980) 방법을 활용하였다. 아울러 자료의 진실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동료 연구자 등 전문가 집단과 함께 지속적으로 연구참여자자들의 견해를 물어보고 실행하였다.

면담내용 작성을 마치고 난 뒤에는 내적 타당도를 확보하기 위해 연구에서 수집된 자료와 연구 결과의 인과관계 분석을 수행하였으며, 외적타당도 확보를 위해 자료의 진위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절차를 수행하였다(성태제, 시기자, 2006).

4. 연구의 윤리성

이 연구를 윤리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문제를 고려하였다. 첫째, 연구참여자 선정 방식에서 사전에 동의를 받고 연구 참여에 희망하는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둘째, 이 연구의 목적과

진행 절차를 연구참여자들에게 명확하게 설명하였다. 셋째, 면담 장소에서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하여 연구참여자들이 원하는 장소에서 진행하였다. 넷째, 연구참여자들의 정보 보호를 위하여 모두 익명으로 하였다. 다섯째, 연구에서 수집된 모든 내용은 연구 외 타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았다.

5. 연구의 제한점

이 연구는 대한태권도협회에서 승인한 격파경기에 한정지어 연구를 진행하였다. 대한태권도협회 승인 격파경기로 한정 지은 이유는 각 대학과 단체들에 의해 제각각 이뤄지던 시범 관련 대회가 2022년부터 대한태권도협회의 기술전문위원회에 격파위원회를 설치하고 대회의 명칭을 “격파대회”라고 정하고 통일된 경기규칙의 적용으로 대회를 치르게 되면서 격파대회 선수등록은 물론 공인심판의 파견과 입상실적을 관리하게 되면서 이른바 “격파대회의 공인화”를 이끌어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격파대회의 공인화의 영향으로 각 대학의 입학에 서로 다르게 적용되던 경기실적이 대한태권도협회의 경기실적으로 통일되는 등 격파대회의 공인화에 따른 경기화에 대한 긍정적 영향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III. 연구 결과 및 논의

태권도 격파경기는 대한태권도협회에서 공식 승인되면서 더욱 더 활성화 되고 있지만 현재의 경기방식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경기현장을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다. 따라서 격파경기 전문가를 대상으로 격파경기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하여 사전조사를 실시한 결과 채점규정, 공정성의 담보, 경기운영방식에 대한 문제로 나타났으며 선수, 지도자, 심판으로 구성된 연구참여자들에 대한 심층면담을 통하여 다음과 같은 결과를 도출하였다. 격파대회 문제점에 대한 귀납적 범주화 결과는 <표 3>과 같다.

표 3. 격파대회 문제점 귀납적 범주화 결과

일반영역	세부영역
채점 규정	격파 기술 난도 규정
	격파 기술 제한
공정성	신체에 대한 공정성
	심판판정에 대한 공정성
경기 운영	경기 운영 규정
	경기장 시설

1. 태권도 격파경기의 문제점

태권도 격파경기의 전문가라고 할 수 있는 선수, 지도자, 상임심판 등 연구 참여자들이 밝힌 격파경기 중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는 “회전 발차기”와 “도약 발차기” 경기의 경기방식에 대한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1) 채점 규정

태권도 격파의 기술 발전은 초창기 무술에 입각한 실용성, 효용성이라는 목적 아래 위력감과 위주의 단순한 격파에서 시작하여 많은 발전을 가져왔으며 특히 대학교 총장배(기)를 중심으로 경기화가 진행되면서 기술의 비약적 발전을 가져오게 되었다. 이와 함께 격파대회 입상자에 대하여 각 대학의 태권도학과, 또는 태권도전공 입시에서 격파 특기자전형 또는 가산점을 부여받게 되면서 경기현장에서 치열한 경쟁이 벌어지게 되었으며 경쟁에서 앞서고자 하는 욕망은 새로운 기술의 개발과 발전으로 이뤄지고 있다.

심층 면담에서 연구 참여자들이 격파대회 채점 규정에 대해 언급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격파 기술의 난도 규정

BBB: 현재 격파경기에서 회전 발차기에 대한 규정은 변화하는 격파 기술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현재 우리 학생들은 1260도 발차기를 구사하고 있으며, 국내에서도 제일 잘 친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왜 실제 경기에서는 540도 회전과 720도 회전으로만 한정지어 경기를 진행하는지 의문입니다. 저는 격파 기술의 난도 규정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대한태권도협회가 규정한 “2022 태권도 격파 경기규칙”에서 회전 발차기는 뛰어 540도, 540도, 720도, 제자리 뒤공중, 뛰어 뒤공중, 측전 뒤공중 발차기로 최고 3단 차기로 규정하고 있고, 도약 발차기는 체공3종차기 3단과 4단 발차기로 제한하고 있다.

이와 같은 규정 속에서 대회에 참가하는 선수와 지도자들의 입장에서는 협회가 규정한 난도를 뛰어넘는 기술 수행이 가능하지만 기술 제한으로 인하여 더 많은 회전을 통한 격파와 난도 높은 체공동작을 통한 여러 개의 목표물을 타격 할 수 없게 되는 것이다.

이와 같은 상황은 경기현장에서 난도가 높은 다양한 기술 보다는 난도가 낮지만 단순한 기술 발취로 이어지고 있으며 이로 인한 동점자의 속출 등의 문제가 나타나고 있어 기술의 수월성(秀越性)을 가리고자 하는 격파경기 본래의 목적과 동떨어진 규정의 적용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2) 격파 기술의 제한

EEE: 격파경기에서 종합격파는 난도 점수가 있지만 도약 발차기와 회전 발차기는 난도 점수가 없습니다. 현재 발전된 시범기술에서 회전 발차기와 도약 발차기 또한 엄청 발전 했잖아요. 그런데 왜 대학 입시와 연관되어 있는 중요한 경기에서 낮은 기술 난도로 제한하는지 의문입니다. 현재의 기술 규정은 변별력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FFF: 심판을 보다 보면 동점자가 종종 속출합니다. 그 이유는 결선에 진출한 모든 선수들이 도약 3종 차기와 회전 3종 차기를 비교하기 어려울 만큼 모두가 잘하기 때문이죠. 때문에 격파경기의 회전 발차기와 도약 발차기의 문제점은 난도 지정과 기술의 제한에 따른 규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차영남, 오재근(2016)은 “경기에서의 기술제한은 기술 발전을 저해하는 행위”라고 밝히면서 경기규칙 개선을 위한 교류와 연구가 필요하다고 언급하고 있으며, 장권, 김중수(2019)는 기술의 제한에 있어서 “고난도 기술 수행에 따른 부상으로부터 선수를 보호”를 위함이 목적임을 강조하면서 격파경기에 평가의 변별력을 높이기 위하여 명확하고 구체적인 채점 기준의 마련”에 대하여 강조하고 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태권도 격파경기의 채점도약 격파와 회전 격파기술에 대한 낮은 난도 규정과 기술의 제한은 경기의 목적인 진정한 수월성을 가릴 수 없을 뿐 아니라, 결국 이와 같은 경기 방식은 태권도 격파기술의 발전 도모라고 하는 격파대회 원래의 목적에도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태권도 격파경기에서도 체조나 피겨 스케이팅 등 다른 종목에서와 같이 더욱 높은 난도와 더욱 화려한 기술을 선보일 수 있도록 난도 규정과 기술 제한에 대한 새로운 기준을 마련하여 격파기술의 발전에 부합하는 경기 방식 제정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2) 공정성

(1) 신체에 대한 공정성

CCC: 제가 생각하는 격파경기의 단점은 격파물의 높이와 너비에 대한 채점 규정입니다. 저는 키가 작기 때문에 송판의 높이와 송판과의 거리는 키가 큰 친구들보다 당연히 더 낮고 좁으니 그 친구들보다 더욱 높은 점수를 획득하기 어렵습니다. 때문에 이러한 평가 기준은 키가 작은 선수들한테는 불이익인 것 같습니다.

DDD: 대표 시범단이나 대학생 시범을 보면 도약 발차기에서 7방, 8방을 격파하는 모습을 보면서 감탄하고 있는데 저희가 참여하는 대회는 격파물의 높이와 너비에 채점 규정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문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격파경기는 ‘누가 더 잘 차냐?’ ‘누가 더 많이 차냐?’ ‘누가 더 강하게 차냐?’ 등에 따라서 채점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연구 참여자들은 공통적으로 격파경기의 채점 규정이 신체조건에 따라 불공정을 초래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특히 격파물의 높이와 간격에 대한 규정에서 목표물의 높이를 높게 할수록, 또는 더욱 멀리 차도록 유도하는 규칙은 키가 큰 선수들에게 유리하기 때문에 공정성에 위배되는 행위라는 것이다. 이와 같은 규정은 낮은 난도의 발차기를 평가함에 있어 변별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목표물의 물리적 위치에 따른 동작수행의 수월성 판단을 위한 방법이라고 볼 수 있다. 장권, 김기동(2020)은 ‘공정성이 위배되는 스포츠는 인기 스포츠로 성장하기 어렵다’고 언급하였다. 따라서 채점규정 개정이 시급한 시기임을 알 수 있다.

(2) 심판 판정에 대한 공정성

AAA: 대한태권도협회에서 격파 상임 심판을 선발하면서 전문성 있는 심판으로 구성하였지만 일부는 공인 품새를 전문으로 하던

심판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도자 입장에서 기술의 난도와 연출력, 정확성에 대하여 공정하게 평가가 이루어질 것인지 의문입니다.

DDD: 현재 상임심판은 격파의 전문가들이 많이 배치되어 있지만 일부 심판은 신뢰가 가지 않습니다. 특히 종합격파는 난도 점수를 따로 채점하는데 몇몇 심판은 말도 안되는 난도 점수를 주고 있어요. 그 이유는 격파 기술의 난도를 구분하지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또한 격파 경기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태권도 격파경기는 세부적으로는 남자부 경기에서 점차 여자부 경기로 까지 확대되었고 그 안에서 중등부, 고등부, 성인부로 나뉘어져 경기가 치러지고 있지만(장권, 김중수, 2019) 연구 참여자들의 주장과 같이 신체조건에 따른 명확한 채점 규정과 심판 자질에 대해 미비한 상태이다.

스포츠 종목에 있어서 승패판정의 기준은 공정성을 기본으로 하고 있으며 이 같은 규정은 대인간 또는 단체간에 대하여 같은 기준으로 적용이 되어야 한다. 하지만 이러한 공정함이 지구상의 모든 스포츠종목에, 모든 스포츠선수들에게 공정하게 적용되는가에 대하여서는 많은 의문점이 발생된다.

이승훈, 이상태, 권태동(2016) 등은 스포츠에서의 불공정성을 초래하는 요인에 “종목에 따라 특정한 신체적 조건이 유리한 종목이 있음”을 강조하면서 특히 “유도, 태권도, 레슬링, 복싱 등의 투기 종목에서 신체적 조건을 제한하고 있으며, 이 같은 종목에서는 체급을 구분하여 신체 조건에서 나타나는 공정성의 문제를 보완하고자 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비록 태권도 격파경기가 투기종목과 같이 체중과 근력이 경기력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닐지라도 체형 등 신체의 외형적 조건에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경기형태가 진행되고 있는 현실에서 이에 대한 채점규정의 개선 또한 고려해야 할 문제라고 판단된다.

3) 경기 운영

(1) 경기 운영 규정

FFF: 현재 격파 종목이 대한태권도협회에서 공식 인정하면서 대학생들의 참여를 독려하고 있지만 출전 선수들이 미비한 실정입니다. 그이 유는 단체전 경기가 없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EEE: 일반부나 여자부 경기도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일반부 격파선수들도 많이 있고 나름 활동동 활발하게 하고 있습니다.

연구 참여자들은 경기 운영 규정의 문제점으로 선수들의 단체전 경기에 대하여 언급하였다. 각 대학 총장배(기)대회가 아닌 대한태권도협회장기 대회에서 대학부 선수들도 격파경기에 참여하도록 유도하고 있지만 출전 선수들이 미비한 실정이다. 이는 경기 운영 규정의 문제라고 할 수 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경기는 낮은 난도로 경기를 치르기 때문에 대학생들은 흥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아울러 일반부의 격파경기를 운용할 필요가 있으며, 이와 함

게 대학부 단체전 도입 등 경기 운영 규정에 관심이 필요하다고 보여진다.

(2) 경기장 시설

AAA: 경기장에서 송판이 깨지면서 파편이 얼굴에 맞으면 매우 위험한 상황으로 이어집니다. 예전에 한 제자는 파편이 눈에 맞아서 추후 실명위기로 합니다. 선수들의 안전을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DDD: 체조 경기를 보면 공중에서 3바퀴 또는 4바퀴 회전하여 착지 하는데 선수들의 안전을 위하여 쿠션 착지 매트를 사용합니다. 우리 태권도 격파 선수들도 딛고 4바퀴 회전하는데 착지를 정확하게 하더라도 충격은 그대로 다 받으면서 크고 작은 부상이 생기고 있습니다. 격파 경기의 운영 측면에서 선수보호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연구 참여자들은 경기 운영 규정의 문제점으로 안전에 대해 언급하였다. 현재 대한태권도협회에서 주최하는 격파경기는 격파자는 물론 보조자들도 부상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실정이다.

특히 격파자들은 공중에서 3바퀴 또는 4바퀴 회전 후 착지 과정에서 염좌, 골절, 인대파열 등 부상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으며 보조자는 격파되는 파편에 맞아 상해를 입게 되는 경우가 많다. 이용주, 허재성, 김기남(2019)은 무궁무진한 발전 가능성이 있는 중,고등부 태권도 선수들을 보호하기 위한 안전장치가 필요하다고 언급하였으며, 격파자 뿐만 아니라 보조자들을 보호할 수 있는 안전장치의 개발이 시급히 이루어져야 할 시기임을 알 수 있다.

2. 태권도 격파경기의 개선방안

태권도 격파 종목이 경기의 영역으로 발전하면서 겨루기와 품새로 편향적인 발전을 이룬 태권도 경기에 균형적인 발전을 가져다 줄 수 있었으며, 태권도 입시 제도의 폭과 태권도의 전체적인 발전에 큰 효과를 가져다주었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연구 참여자들은 태권도 격파경기에 대한 문제점들을 언급하였으며, 이러한 문제들을 지니고 있는 격파경기가 더욱더 발전해 나아가기 위해 어떠한 점을 개선해야 하는지에 대하여 의견을 제시하였다.

1) 체점규정 개선

AAA: 관중들은 태권도 격파 종목이 경기화 되면서 태권도의 품새와 겨루기보다 더욱 재미있다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너무 똑같은 난도로 진행하면서 그 의미가 사라진 것 같아요. 결선 경기에서는 경기 방식을 변경하여 자신의 컨디션과 완성도에 따라서 마음껏 기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7방차기, 8방차기도 선보일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것이 스포츠 경기라고 생각합니다.

EEE: 제가 생각하는 개선방안은 결선에 진출하면 격파의 난도를 지정하지 않아야 합니다. 작년 모 대회에서 A 대학팀에서 최고

난이도 격파인 고공 도약 7단계를 준비하여 출전했어요. 여기에서 재미있었던 점은 상대의 실패와 성공에 따라서 난도를 조절합니다. 상대 선수가 고공도약 7단계를 준비하여 시연했지만 1장 미스 났어요. 그리고 우리 선수가 출전할 때 7단계를 준비했지만 6단계로 단계를 낮추어 완파하면서 우승하였어요. 경기에서의 작전이 돋보였던 대회였고 난도의 제한이 없기 때문에 재미있는 경기가 된 것 같아요.

FFF: 심판의 입장에서 보면 지난대회와 다르게 올해부터 결선에서 송판 한 장을 추가하면서 초반에는 조금 변별력이 생겼습니다. 하지만 올해 후반에 들어서 모든 선수들이 기량 향상되면서 또 변별력이 없어졌습니다. 한 장씩 추가한다고 변별력이 크게 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제는 경기방식을 바꿔서 결선에서는 모든 선수들이 자유롭게 난도 높은 발차기를 칠 수 있도록 풀어줘야 합니다.

태권도 격파경기가 활성화 되면서 일각에서는 태권도의 화려한 발차기를 보면서 스트레스 해소와 동시에 태권도의 멋진 경기가 탄생하였다고 환영하였다. 하지만 도약격파와 회전격파의 경기는 예선과 결선에서 모든 선수가 지정된 낮은 난도로 순위를 가리면서 선수들은 더욱 높은 기량을 발휘 할 수 없으며, 관객들은 흥미를 상실해 가고 있다.

모든 스포츠경기는 경기 규칙에 따라서 경기의 기술의 변화는 물론 경기를 운영하는 선수들의 전략과 전술이 변화하기 마련이다. 태권도겨루기 경기에서는 전자호수가 채택되고 득점에 대한 판정기준이 변경됨에 따라 선수들은 경기에서 쉽게 득점할 수 있는 앞발 밀어차기 위주의 경기를 운영하게 되었고, 제기차기, 전갈 차기 등 전에 볼 수 없던 변칙기술들이 등장하게 되었다. 결국 태권도 본래의 강력하고 화려한 발차기기술이 경기를 지배하던 시대가 종료되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일부 종목에서는 상대 선수의 경기 결과에 따라서 그에 맞춰 승리하기 위한 작전을 짜기도 한다. 올림픽 역도 경기에서는 앞선 선수가 150kg 용상에 성공하면 바로 작전을 변경하여 160kg를 신청하여 도전한다. 또한 상대 선수가 도전하여 실패를 했을 경우, 작전을 변경하여 자신이 우승할 수 있는 정도의 안정적인 무게로 하향조정하여 경기를 운영하는 모습을 쉽게 찾아 볼 수 있다.

신종섭, 권구명(2018)은 “태권도 격파가 전문화되고 경기화 되면서 많은 대회가 개최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고득점을 받을 수 있는 화려한 발차기가 탄생한다”고 언급하고 있다. 따라서 대한태권도협회에서 주최하는 격파대회의 도약격파와 회전격파도 결선경기에서는 지정기술을 넘어 자유롭게 난도를 조정할 수 있도록 경기방식을 개선한다면 선수들이 난도 높은 화려한 발차기를 시연할 수 있을 것이며, 나아가 태권도 도약발차기와 회전발차기의 발전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사료된다.

2) 공정성 담보를 위한 개선방안

BBB) 몇몇 선수들은 난도 높은 발차기는 잘 차지만 현재 낮은 난도로 경쟁하면서 메달권에 들지 못하는 선수들이 있습니다. 낮은 난도에서 탈락하는 경우는 격파물의 높이와 너비의 채점 기준입니다. 따라서 제가 생각하는 개선방안은 공정성을 위하여 송판의 높이와 거리에 대한 사항을 없애고 자신의 율정한 기량을 마음껏 발산할 수 있도록 난도 제한을 없애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CCC: 대학입학과 연관되는 중요한 대회인 만큼 상임심판 선발 및 교육에 더욱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난도를 구별 못하는 몇몇 심판들 때문에 메달권에 들지 못하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선수들이 받는다고 생각합니다. 대회의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태권도 시범을 전문으로 한 분들에게 한해서 심판으로 선발해야 합니다.

DDD: 특히 중고등학교 학생들의 경우에는 성장과정에 있기 때문에 신체적으로 차이가 많이 나는 경우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겨루기 경기와 같이 체급으로 나눌 수는 없다고 하더라도 선수들을 위한 원가 다른 방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최근 태권도 격파경기대회에 출전하는 선수들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대회의 개최횟수도 늘어가고 있다. 이는 태권도 격파경기의 입상자에 대하여 대학의 태권도 전공학과를 중심으로 입학전형에서 가산점을 부여하게 되면서 격파대회에서의 경기입상실적만으로도 대학에 입학할 수 있는 특전이 이뤄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대회에서의 성적이 상급학교로의 진학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게 되면서 경기의 공정성에 대한 선수, 지도자, 학부모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경기에서 판정에 대한 공정성은 채점에 대한 명확한 규정과 적용에 있다고 생각된다. 연구 참여자들은 채점의 규정에 있어서 목표물의 높이와 간격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목표물의 높이와 간격에 대한 문제는 기술의 난도, 수행력에 대한 문제이며 이와 관련하여 대한태권도협회 격파심판위원회 관계자는 “높이와 간격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은 없지만 선수들의 체격조건을 고려한 채공에 따른 높이와 격파물간의 거리를 의미하는 것”이라고 하여 단순한 격파물의 높이와 간격만을 의미하지 않음을 밝히고 있다.

소병철(2020)에 따르면 “선수들은 육체를 강화하여 더욱 차원높이 도약하는 것을 추구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 따라서 관중이나 선수들은 스포츠를 미주하면서 열광하고 향유하게 된다”고 언급하고 있다. 따라서 대회에 참여하는 대부분의 선수들이 성장기에 있는 중, 고등학생임을 고려할 때, 참가선수의 구분에 있어서 학년별로 나누고, 이에 더하여 신장으로 나누는 등 신체적 조건별로 세분화하는 방안에 대하여 고민해야 할 것이다.

연구 참여자들은 심판들의 자질에 대하여 문제를 제기하고 있으며 특히 격파대회 심판으로서의 전문성에 대하여 의구심을 나타내고 있다. 아울러 최근 격파대회 경기현장에서 선수와 지도자 등을 중심으로 심판판정의 공정성 측면에서는 이전 대학총장배 대회와 비교하여 크게 발전되지 못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격파대

회가 태권도 공식 경기단체인 대한태권도협회 승인대회로 치러지게 되면서 2021년 심판교육을 통하여 2022년 처음으로 상임심판제도를 도입하여 심판을 경기에 투입하고 있다.

특히 2022년부터는 대한태권도협회장기대회, 대통령기대회 등 중앙경기단체에서 개최하는 경기와 함께 각 연맹체에서 격파대회를 신설하게 되면서 대회가 대폭적으로 증가하게 되면서 심판들의 대회 참여횟수가 늘어나게 되고 있지만 상임심판에 대한 전문성 확보를 위한 보수교육이나 재교육 등은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

공진술, 이제훈(2021)의 연구에서는 “해당 분야의 지식이 부족한 심판의 주관적인 판정은 신뢰성과 객관성에 문제가 발생한다”고 언급하고 있다. 이는 스포츠 경기에서 심판이 갖추어야 할 자질 중 그 분야에 대한 전문성에 대한 문제로 이것이 스포츠경기에서의 가장 핵심적인 문제임을 언급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심판들의 전문성 강화를 위하여 상임심판의 선발 과정에서의 세심함과 함께 지속적인 교육, 재교육을 통한 격파심판의 전문성확보를 위한 노력을 제고하여야 할 것이다.

3) 경기 운영 규정 및 시설에 대한 개선방안

AAA: 요즘 보조자들이 송판 파편으로부터 얼굴을 보호하기 위하여 코로나19에 유행하던 페이스 실드나 안경을 착용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장치는 태권도 경기장에서 미관상 좋지 않기 때문에 태권도 격파 보조자를 위한 얼굴 보호대가 개발되어야 합니다.

DDD: 자신이 잘하는 기술일지라도 보조자와의 호흡이 안 맞으면 큰 부상으로 연결됩니다. 그리고 4바퀴 회전 후 정확하게 착지하더라도 그 충격이 심하기 때문에 태권도 격파 전용 매트 개발이나 태권도 매트 아래에 체조에서 사용하는 마루 경기의 매트를 깔아 준다면 안전할 것 같습니다.

FFF: 대학생들이나 일반부 선수들이 격파대회에 참여하도록 하려면 개인전에서 결선 경기는 난도 규정 없이 풀어주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단체전이 있어야 합니다. 태권도 격파는 팀 호흡이 중요하기 때문에 대학생들이 참여하는 대회의 대부분은 단체전이지요. 단체전이 신설된다면 대학생들이 많이 참여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현재 태권도 격파 경기가 대한태권도협회의 승인을 받으면서 더욱더 활성화 되었다. 하지만 경기에서 격파자 뿐만 아니라 보조자들도 부상의 위험에 노출되면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무카스(2022)는 ‘태권도 격파대회 속출하는 부상, 이대로 괜찮은가?’라는 기사에서 “현재의 격파경기에서는 다칠 수밖에 없는 환경에 노출되어 있다”고 지적하면서 “스포츠는 안전 사항이 완비된 상황에서 대회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언급하며 격파대회에서 안전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연구 참여자들은 격파경기에서 격파자는 물론 보조자의 안전에 대하여서도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초창기 태권도 겨루기는 보호구 없이 이뤄졌지만 경기화가 진행되면서 몸통보호대를 착용하게

되었고, 국제경기화를 추구하면서 머리보호대와 팔다리 보호대를 의무화하였으며, 올림픽에 채택되기까지 ‘마우스피스’ 까지 착용하도록 규정하였다. 이와 같은 규정은 대회의 발전에 따라 안전에 대한 중요성이 강조되었기 때문이라고 판단된다.

격파경기에서 나타나는 대부분의 부상은 무릎과 발목, 그리고 발등의 부상이며 그중 무릎의 인대파열이 가장 치명적인 부상으로, 대부분 회전동작과 착지동작의 과정에서 부상을 입는 것(장권, 김중수, 2017)으로 나타나고 있다. 격파경기의 도약격파에서는 높은 높이에서 동작을 수행하고 바닥에 착지하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엄청난 충격이 몸으로 전달될 수밖에 없게 된다. 또한 회전격파에서는 충분한 도약과 공중회전이 필수이며 이와 같은 동작의 안전한 수행을 위해 바닥면의 탄성 확보, 마찰력과 충격흡수력이 가장 필요한 상황이지만 현재 격파경기현장은 겨루기 경기용 매트를 그대로 사용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결국 보조자들의 안전을 위한 페이스 쉴드, 보안 안경 등의 의무적 착용과 함께 선수들의 안전을 위한 경기장 매트에 대한 격파경기에 맞는 규격 공인화와 현장의 적용이 선결되어야 할 것이다.

경기운영측면에서는 현재 중·고등학생 중심의 개인전 경기의 결선경기에서 만이라도 기술의 제한을 풀어야 한다. 아울러 대학부, 일반부 경기로 확대 발전을 이뤄야 할 것이다. 특히 대학부의 경기에서는 개인전 경기와 함께 태권도시범의 경연화를 위하여 단체전 경기를 활성화하는 방안과 함께 일반부 경기에서 위력격파 경기도 함께 진행할 필요가 있다.

스포츠 경기는 더욱 난도 높은 기량을 선보이는 싸움이라고 볼 수 있지만 무질서한 행위가 아닌 경기규칙을 통한 문명화된 겨룸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선수들이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는 경지의 기술을 보여줄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하여 준다면 관객이나 선수들에게 존경과 감탄을 자아낼 수 있을 것이며 나아가 태권도 격파경기의 발전과 활성화에 더욱 큰 역할을 할 것이라 판단된다.

IV. 결론

이 연구는 격파경기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파악하고, 스포츠 경기종목으로 기량과 기술을 공정하게 겨루어 승부를 가리는 것뿐만 아니라 격파 경기를 통하여 태권도의 기술 발전을 이루고자 하는 것에 대한 올바른 방향을 제시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이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격파경기에서 참여 경험이 있는 선수, 지도자, 그리고 대한태권도협회 상임심판 등 격파경기과 직접 관련이 있는 전문가 6명을 연구 참여자로 선정하였다. 선정된 연구 참여자들은 현재 최상의 경기력과 지도력을 겸비하고 있으며, 그들을 대상으로 질적 연구 방법인 반 구조화된 심층 면담을 통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을 도출하였다.

현재 태권도 격파경기의 문제점은 첫째, 채점 규정에서 회전 격파와 도약 격파는 난도가 현저히 낮은 기술로 경기를 규정하면서 재미없고 지루한 경기를 선보이고 있으며 동점자가 속출하고 있다. 둘째, 선수의 신체적 특징을 고려하지 않은 경기규칙을 적용하여

불이익을 받는 선수들이 속출하고 있으며, 심판에 대한 자질 등 문제점들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선수들의 안전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경기를 진행하면서 크고 작은 부상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실정이다.

태권도 경기의 개선방안으로는 첫째, 도약격파와 회전격파 결선 경기에서 자유롭게 난도를 조절할 수 있도록 경기방식과 규정을 개선해야 한다. 둘째, 상임심판의 선발과 함께 지속적인 교육, 재교육을 통한 격파심판의 전문성확보를 위한 노력을 제고하여야 한다. 또한 참가선수의 구분에 있어서 신체적 조건별로 세분화하는 방안에 대하여 고민하여야 한다. 셋째, 경기현장에서의 안전을 위하여 페이스 쉴드, 보안 안경 등의 의무적 착용과 함께 선수들의 안전을 위한 경기장 매트에 대한 격파경기에 맞는 규격 공인화가 이뤄져야 한다. 아울러 대학부, 일반부 경기로 확대 발전을 이뤄야 할 것이다. 특히 대학부의 경기에서는 개인전 경기와 함께 태권도 시범의 경연화를 위하여 단체전 경기를 활성화하는 방안과 함께 일반부 경기에서 위력격파 경기도 함께 진행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하여 모든 출전 선수들이 똑같은 기술을 선보이는 지루하고 딱딱한 경기를 탈피할 수 있을 것이며, 상대 선수에 맞는 작전도 이루어질 것이며 결국 태권도 회전 발차기와 도약 발차기의 기술 발전에도 큰 역할을 할 것이다.

스포츠 경기에서 관객들은 경기를 관람하다 흥분하면서 광희(狂喜)를 보이는 이유가 무엇인가? 그것은 선수들이 경쟁하며 선보이는 기술의 매혹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즉 인간의 경지를 뛰어넘는 기술을 보면서 관객들은 존경과 경탄을 보이게 되는 것이다.

태권도에서는 겨루기와 품새가 먼저 경기화가 이뤄져 국제대회 정식종목으로 치러지고 있다. 하지만 이 두 경기는 태권도가 가지고 있는 화려한 발차기, 위력적인 격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 못한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태권도 본질과 의미에 부합하도록 격파경기규칙과 운영방법을 개선한다면 겨루기, 품새 경기에서 볼 수 없는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는 기술을 보여주며 태권도경기의 새로운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을 것이며 결국 전체적인 태권도 경기화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앞으로의 연구에서는 태권도 격파 경기도 품새나 겨루기 경기처럼 국제대회와 멀티 스포츠 경기에 도입될 수 있도록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참고문헌

- 대한태권도협회(2021). 2021 태권도 격파 경기규칙.
대한태권도협회(2022). 2022 태권도 격파 경기규칙.
국기원(2006). 태권도 교본. 서울: 오성출판사.
국기원(2021). 태권도 교본. 서울: (주)명진씨앤피.
국어사전(2022). ko.dict.naver.com
강은석, 문영재, 허승은(2019). 태권도시범의 공연예술과 경기화 발전방향 탐색. 세계태권도문화학회, 10(4), 77-93.

- 공진술, 이제훈(2021). 대학부 태권도 품새 우수선수와 비 우수선수의 균형능력과 기능적 능력 비교. **스포츠사이언스**, 39(1), 9-18.
- 권경상, 권현수, 권구명(2018). 태권도 시범문화에 발현된 내셔널리즘. **국기원태권도연구**, 09(2), 27-41.
- 김상명, 남미희, 이용주(2018). 태권도 시범단원의 자기관리 및 스트레스 대처가 경기력에 미치는 영향. **한국무예학회지**, 12(3), 97-114.
- 김영진, 전정우(2018). 태권도 시범경연대회의 현황 및 발전방안. **국기원 태권도연구**, 9(4), 43-64.
- 두산백과(2022). www.doopedia.co.kr
- 무예신문(2019). 국기원태권도시범단, 미국 ‘월드 베스트’ 서 최고 점수 받아. http://www.mooyenews.kr/sub_read.html?uid=10462
- 무카스(2022). 태권도 격파 대회 속출하는 부상, 이대로 괜찮은가? <https://mookas.com/news/18398>
- 성태제, 시기자(2006). **연구방법론**. 서울:학지사
- 소병철(2020). 향유와 열광 사이- 현대 스포츠의 흡인력에 관한 철학적 탐구. **철학논집**, 61, 173-202.
- 신종섭, 권구명(2018). 성찰적근대성 이론으로 바라본 태권도시범단 단원의 부상. **국기원태권도연구**, 9(2), 89-103.
- 심종인(2020). 태권도 시범 경연 대회 활성화를 위한 개선방안: 총장배 대회를 중심으로. 미간행 석사학위논문, 한국체육대학교 대학원.
- 이승환(2014). 태권도 시범경연대회의 발전방향. 미간행 석사학위논문, 한국체육대학교 대학원.
- 이승훈, 이상태, 권태동(2016). 유도경기에서 체급 구分的 공정성 문제. **대한무도학회지**, 18(4), 01-12
- 이용주, 허재성, 김기남(2019). 대학 총장기(배) 태권도 시범대회의 문제 탐색 및 발전에 관한 연구. **국기원 태권도연구**, 10(2), 43-61.
- 장권, 김종수(2019). 태권도 격파대회 경기규정 변화의 시계열적 경향성: 기술격파 중심으로. **한국스포츠학회지**, 17(4), 1197-1208.
- 장권, 김종수(2017). 태권도 시범기술 수행의 실패요인 탐색. **한국스포츠학회지**, 15(1), 111-119.
- 장권, 김기동(2020). 태권도 역사 연구에서의 오류에 대한 반성적 고찰 - 태권도친선사절단에 대한 논의를 중심으로. **스포츠사이언스**, 38(2), 269-278.
- 전인률(2020). **고등학교 태권도시범종목 선수들의 격파대회 고득점 획득 요인 탐색**. 미간행 석사학위논문, 용인대학교 일반대학원.
- 차영남, 오재근(2016). 국가대표 태권도 시범단 단원 및 겨루기 선수와 일반 수련생의 하지근력, 체간근력, 균형능력, 고유수용 감각의 차이. **스포츠사이언스**, 33(2), 175-184.
- 한국체육대학교(2021, 2022). **한국체육대학교 총장배 전국태권도대회 자료집**.
- 대한태권도협회 www.koreataekwondo.co.kr
- Patton, M. Q. (1980). *Qualitative evaluation and research methods (2nd ed)*. Newbury Park, CA: Sage.